

# 국민의당 기초의원 '탈당 러시' 이어지나

### “통합 반대” 목포시의원 5명 무안군의원 이어 결행 반대파, 내일 광주서 창당 토론회…추가 탈당 관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추진에 반발해 국민의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면서 향후 통합에 반대하는 지방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의회 강찬배·이기정·정영수·주창선·임태성 의원은 8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통합을 거듭 반대한다”며 탈당 결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계승에 맞지 않고 햇볕정책을 전면 부정한 보수 대야합”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탈당 배경과 사전교감에 대한 질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정체성에서 맞지 않다”면서 “탈당과 관련 박지원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과도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까지 무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이날 5명의 탈당으로 전체 22명 중 14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다. 목포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반대파의 중심에서 안철수 대표를 연일 맹공 중인 박지원 전 대표의 지역구다.

앞서 무안군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 2명도 탈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탈당을 계기로 목포는 물론 호남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탈당 행렬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역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다.

앞서 통합 반대파가 주류인 광주·전남 국민의당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은 지난해 31일 바른정당과 통합에 찬성하는 전 당원

투표결과가 발표되자 안철수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지방의원 간담회 등을 열어 탈당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반대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신당 창당 움직임이 사실상 본격화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당 창당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이 오는 11일 광주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 탈당 지방의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통합 반대 정세가 강한 만큼 통합이 추진되면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오는 6월 지방선거 행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탈당이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소속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

민중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지방의원들은 신당 창당보다는 국민이 만들어 준 제3당인 국민의당을 지키자는 의견이 상당수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하게 되면 무조건 탈당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과 기초의원,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연말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 통합 논의 중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당명을 포함한 당의 전면적 쇄신, 지방선거 대책 추진 등 요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이 기정사실화되면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탈당 또는 잔류 결단이 이어질 것”이라며 “통합 반대파에서도 통합 저지와 함께 창당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역 정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 “한국과 관계발전 희망”

### 칼둔 UAE 청장, 정 의장 예방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한국과 UAE 양국관계를 번함없이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한한 칼둔 청장은 오후 3시께 여의도 국회의장을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30분여간 이어진 정 의장과 칼둔 청장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군사협력 갈등설 등 임 실장의 UAE 행을 둘러싼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정 의장과 칼둔 청장의 회동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 각종 의혹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공식적인 예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년 동안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온 것에 대해 서로 평가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밝혔다. 김 대변인은 “UAE 쪽에선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고 계속 지속해 나가길 원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고, 정 의장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 실장이 UAE 방문 때 칼둔 청장을 만난 것, 이명박 정권 시절 군사 양해각서(MOU) 얘기, 지난 정부에서 맺은 MOU의 국회 동의 필요 등 UAE 관련 의혹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느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우의 다지러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최측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가운데)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최고위,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의혹 진상 조사

### 경선 출마 예정자 신년 문자 발송…“부당행위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의혹이 제기된 중앙당이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에 반영해 예외없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 이어서 향후 파장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의혹 진상을 조사하기로 하고 이날 당직자들을 광주에 급파했다.

조사단은 중앙당 사무부총장 김민기 의원과 중앙당 박규섭 조직국장 등으로 이뤄졌다.

중앙당 조사단은 최근 광주시당 당내 경선 출마 예정자 중 한 명이 발송한 신년문자메시지 일부가 신규당원들에 집중 발송된 경우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일부도 신규당원에 발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연말 광주시당 조직 국장에서 불러낸 A씨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에 연루됐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당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날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한 공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립의 무 위반,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정경쟁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불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헌 당규상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기타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 관련 조치들에 대한 불이행 등 공정한 선거 기초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심판회 회부, 공천심사 반영 등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여야, 개헌·사개특위 가동 합의

### 정 의장 주례회동…사회적 참사법 특조위 내일까지 구성

여야 3당은 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이나 개헌의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 파열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새해 첫 주례 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회동 후 기자회견을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내일 오전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할 예정 이어서 내일이면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개헌특위와 사개특위가 단시간 내 출범해 지방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도 빨리 정비해 해주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당이 조속한 특위 구성에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

합력에 의해 특위 구성에는 참여하겠지만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사개특위가 새해 벽두부터 잘 가동·운영돼 반드시 올해 안에 국민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개헌은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날자를 잡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개헌 시기와 관련한 한국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결다리 개헌은 안 된다”며 반대하면서 연말까지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 방향과 관련,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또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구성을 시한(10일) 내 완료키로 했다. 이밖에 국회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당이 조속한 특위 구성에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

## 與 지도부 대거 지방선거 나설 듯

### 이개호·민홍철·김우남·박남춘·박범계 단체장 후보 거론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최고위원 상당수가 ‘6·13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달을 전후로 민주당 지도부가 대폭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고지도부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2월 13일)에 시도당 위원장과 최고위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 8명 가운데 권역별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이다. 이개호(전남도당위원장)·민홍철(경남도당위원장)·김우남(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박남춘(인천시당위원장)·박범계(대전시당위원장) 최고위원 등 5명 모두 현재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8일 현재까지 지방선거를 위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지만, 시한이 임박하면 사퇴 선언이 잇따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당사자들은 일제히 해당 지역 현안을 소재로 발언을 이어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개호 최고위원은 “요즘 영화 ‘1987’이 온 국민을 울리고 있다. 이 땅의 민주

주의를 활짝 연 1987년 6월항쟁의 근본적인 시작은 1980년 5월 광주”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과 광주항쟁을 다른 ‘택시운전사’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발전과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재선인 이 의원은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며, 최고위원 사퇴 대상은 아니지만 양 최고위원도 광주시장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 최고위원제는 지난 2015년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도입했다. 권역별 최고위원 임기 2년은 시도당 위원장들이 나눠서 맡는다. 현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나서기 위해 2월 13일(선거 120일 전) 이전 최고위원 자리를 내놓으면 잔여 임기를 신임 시도당 위원장이 채운다. 아니면 같은 권역 내의 다른 지역 위원장이 맡게 될지도 관심사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8. 2. 6(화) 오후 2:4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

###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 집 연	모 집 인 원	지 원 자 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전 형 일 : 2018. 1. 23(화)

---

### 학부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 대학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임원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